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직관들을 보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 복구전투의 성과를 위해 이렇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양묘장을 건설해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거듭거듭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귀중한 재부가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122호양묘장건설을 통하여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이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산림 복구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려는 당의 결심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122호양묘장건설을 통하여 당의 전투명령을 빛나게 관철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의의깊은 로력적성들을 드렸다고, 힘겨웠지만 이렇게 해보느니 얼마나 좋은가고, 바로 이것이 김일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계적인 양묘장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한 설계단위, 시공단위, 과학연구부문에 당 제7차대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산림 복구전투의 강력한 병기장인 양묘장의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취업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들의 일터를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켜 주시고 또다시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한 결판》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스페리에주제사상연구소조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9일에 진행되였다. 발행식 장정 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스페리에주제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오스카르 필레비는 발행식에서 뜻깊은 시기에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출판, 발행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친근한 빛인 자기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이며 융당한 분문이라고 말하였다. 소조는 앞으로도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장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이시디》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만나 미드 타르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져있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인민의 커다란 기대속에 5월 6일에 성대히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출판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이시디》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게 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위대한 주제 사상을 창시하시어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시였으며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널리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9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광범히 보도하였다. 구비아의 브렌썬 퍼머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 참가한 모든 대표자와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파키스탄신문 《더 네이션》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영도자께서 당의 위원장으로 추대》라는 제목으로 당대회 주석단에 게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 사진편찬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영도자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전하고 당 제7차대회는 김정은최고영도자를 따르는 길에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승리와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과 김정은영도자의 원위가 절대적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이 나라의 신문들인 《엔 문도》, 《엔 베리더》, 《타 민구이디》와 라디오, TV방송, 비스프라지오TV방송, 에세프신도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캄보디아국가지오방송은 당 제7차대회 결정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의 전문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신문 《사우모시》, 모닝 포스트와 동광위성 TV방송, 신화망, 환구망, 국제방송망, 청년망, 필립핀신문인 《인전》, 《하노이 머이》, 라오스신문 《메이타인 미이》, 네팔텔레비전방송인 《AB 뉴스》, 《마이클》, 인디언의 신문들인 《인두》, 《인디안 익스프레스》, 《에이엔 에이피》,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유엔아이통신, NDTV방송, 이란의 신문인 《메이안 인터네셔널》, 《이란 뉴스》, 《아이비셀 트리뷴》, 타이의 신

문 《양크 포스트》와 각 텔레비전방송 프로그램, 튀르키예신문들인 《메일리 싸야르》, 《하세르메르》, 《일제리인 리베르티》, 《알 밀라트》, 에리트리아의 《파블리카》, MD와 에르메레트 출판사, 코트디부아르의 《아프리카 뉴스》, 벨라루스의 신문들인 《메디아 칼》, 《인베스트. 베제》와 포스트통신, 영국의 신문들인 《데일리 메일》, 《스카이 뉴스》, 《인러내슈널 비즈니스 타임스》, ITV NEWS, 프랑스의 신문 《몽드》와 프랑스로선선협회인 리베르테르메지, 도이칠란트의 신문 《한델스블라트》와 텔레비전방송인 《N-TV》, 《제이비》, 도이칠란드인민단 인터네트홈메지, 폴스카인 《에트브로스블라트》, 체코의 신문 《할로 노비니》와 인터네트신문 《노민기》, 스위스의 신문들인 《트리뷴 드 제네브》, 《리 메일》, 《리 메일》, 오스트리아 신문 《레크 슈판다르트》, 미국의 AP 통신과 신문 《뉴욕 타임스》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28호

주제105(2016)년 5월 11일
평양시 통성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새 세계 교육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레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육의 정보화수준을 높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장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성과를 이룩한 평양시 통성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보자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5월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가 13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도안의 당, 정전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함경남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철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45(1956)년 5월 함경남도안의 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인준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당일성 자회의에서 하신 연설 《당 제3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함경남도 당단체들의 과업》에서 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과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인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흥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비료생산량을 높이며 카바이드에 기초한 유기합성공업의 도대를 마련할

데 대한 문제, 종합적인 대형기계설비생산기지를 꾸리며 도지의용률을 높이는 문제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과업과 담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도안의 당사업과 경제, 문화발전,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고 지난 60년간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고 자재의 원료에 의한 종합적인 대형기계설비생산기지가 들어서 주체비달본과 비료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철강제철업, 압축기 등 현대적인 대공업기계를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최근년간 함흥시가 로동계급의 도시답게 훌륭히 변모되었으며 함남과 단천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되고 종합공업과 축산, 수산업 등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진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또한 함주군 동룡동농장에서 동해안농사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농업생산이 늘어났으며 많은 농촌마을이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졌다고 그는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고자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발전소들에서 민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려 전력생산을 최대로 높이는 등 인민경제 선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세우며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높임으로써 인민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단천과 수동지구의 풍산들과 공장, 기업소, 관공들에서 연, 아연, 마그네

【조선중앙통신】